

01 교회소식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아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만민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했던 창립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

02 생명의 말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역경이나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으며 생명 다해 영광 돌릴 수 있었다.

03 기획특집

“만민의 성도님들, 축하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만민중앙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아 성결의 오중 복음과 권능의 사역에 감사하며 사랑이 가득 담긴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04 세계 선교

하나님의 보장하심 가운데 이루는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장하심 가운데 무수한 영혼이 삶의 변화와 치료의 역사, 각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 받아 구원의 수를 더하고 있다.

만민뉴스

제1004호 2023년 10월 2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새 예루살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



지난 10월 8일 주일, 우리 교회는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으로 지금까지 친히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날 대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요일 4:16)이라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설교가 있었으며, 저녁예배는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으로 드러졌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몰도바, 케냐,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페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창립 41주년을 축하했다.

GCN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예배와 축하 공연은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불어, 몽골어, 베트남어 총 8개 언어로 동시통역 되었다.

1부 기념 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새 예루살렘’(계 21:10~11)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만민 제단이 있기까지 또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마음에 되새겨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 곧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올 것”을 당부했다.

2부에는 ‘HEAVEN’(부제: 내가 꿈꿔왔던 그곳)이라는 주제의 예능위원회 축하 공연을 통해 창립 41주년을 맞이까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전만민교회에서 열렸는데 대전만민교회 성도들이 본 교회 창립을 함께 기뻐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부침개, 떡, 닭꼬치, 짜배기, 떡볶이, 과일, 아이스크림 등 풍성한 먹거리가 교회 마당에 마련돼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창립 기념일이 되었다.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으로 모세는…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브리서 11:24~26)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중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모세 선지자를 통해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이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조건 충성 봉사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귀영화를 얻어 그저 자신이 잘 먹고 잘살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보상으로 축복받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온전치 못한 마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믿음 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역경이나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모세의 신앙

모세는 B. C. 150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족속이 크게 번성하자 새로 태어나는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집 안에 숨겨 키우다가

(히 11:23)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내지요. 마침 애굽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해 건져냈고, 이를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친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합니다. 이에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서 친어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친어머니 밑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배웠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 것과 애굽 땅에서 살게 된 배경도 듣게 되었지요. 또한 앞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큰 나라를 이루리라 약속하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1) 애굽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앞서가는 문명을 이룬 강대국이었기에 왕자의 권세도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왕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머무는 한 모세는 평생 부귀영화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처럼 부러운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애굽에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해방해야겠다는 마음이 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모세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만 의분이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궁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히 11:24~26).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평생 쌓아 온 모든 것을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위해 버릴 수 있겠는지요?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 대신 주님을 위해 멸시와 천대, 수치를 당해야 한다면 과연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스스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이 땅의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2) 어떤 고난도 참고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후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를 40년간 연단하신 뒤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어떤 명예나 권세 없이 애굽 왕 앞에 나가는 것이나 장정만도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매 순간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기세등등한 애굽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달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흥해를 가르고 백성들과 마른 땅을 지나듯 바다 가운데를 건널 수 있었지요.

뒤쫓아 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에 젖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먹을 물과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잘살고 있었는데 광야로 끌려내 죽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들에게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흥해를 갈라 생명을 건져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심히 민망했을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갈 일을 생각하면 막막함에 절로 탄식이 나왔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절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p> <p>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저녁예배</td> <td>3: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금요철야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td> <td>8:30 PM</td> </tr> <tr> <td>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td> <td>9:00 PM</td> </tr> <tr> <td>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r> <td>다니엘 철야 기도회</td> <td>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td> </tr> <tr> <td>새벽예배</td> <td>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td> </tr> </table> <p>※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믿음을 보고 백성들을 먹일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라는 양식을 날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주셨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스스로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더구나 그는 백성을 위해 애굽 왕자의 지위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는 강박한 백성들을 이끌고 머나먼 광야 길을 가야 할 책임입니다.

수많은 백성의 생활을 돌보는 것도 고생스러운데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지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원망이 더해 가는 현실 속에서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했을까요?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어떤 기쁨을 바라본 것도 아니며,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차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사명을 억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온 힘과 중심을 다해 감당했지요.

그런 중심이었기에 자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위해 대신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실 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 32:32)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모세를 지극히 사랑해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칭찬하시며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민 12장). 그러니 그가 천국에서는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열심히 충성하게 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 마음을 연단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을 쌓아 하늘에서 큰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3)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마음 중심에서 믿었던 것입니다.

악한 무리가 모세를 비방하며 반역할 때도 모세는 같이 싸우거나 변론하지 않았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지칠 즈음, 고라가 백성들을 미혹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생깁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 형으로, 자신도 못 할 것이 없는데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못마땅했습

니다. 그래서 유력한 족장 중 250명을 꺾어 모세를 대적하지요.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을 순식간에 멸할 것이니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어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 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산 채로 삼키고 말았습니다. 고라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까지 모두 땅속으로 들어간 후에야 땅이 다시 합쳐졌지요(민 16:1~33).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철저히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여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랑으로 온 집에 충성해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창립 4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스라엘 나사렛 생영교회 | 세르게이 보차르니코프 목사

사랑하는 만민중앙교회의 창립 41주년을 마음 다해 축하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사역은 언제나 충성되고 신실합니다. 저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이제 새로운 도약으로 나오는 만민을 사모하며 신속히 이러한 축복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국 월드성결센터 대표 | 마크 바질레프 목사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놀라운 사역을 이루심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이 귀한 성결의 복음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고 축복받았으며 계속 축복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민을 사랑하며,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천국의 문 교회 | 유리 코노발로프 목사

전 세계 많은 영혼이 만민중앙교회의 사역을 통해 은혜받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만민을 통해 은혜받는 자들로서 벌써 수년간 만민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잘 이루어 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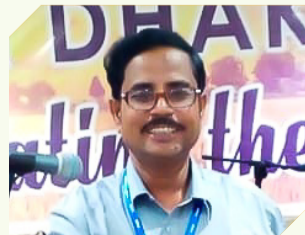
몰도바 만민교회 |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목사

만민의 사역을 이끄신 사랑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창립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만민과 함께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결 복음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만민을 만드신 뜻과 섭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케냐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대표 | 지포라 은구미 박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에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만민의 헌신을 통해 모든 나라 사람이 악에서 돌이켜 주께로 나아와 구원에 이름을 통해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함께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방글라데시 | 알프레드 로이 목사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 큰 축복을 받았으며,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할 때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재정적인 문제와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만민교회가 세워져 축복의 사역이 이뤄지기를 기도합니다.



유튜브 등을 통한 활발한 미디어 선교로 복음을 전파하다!

장정연 목사 (라틴아메리카 총회장)



1996년 '아르헨티나 한인 축복 대성회 및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온두라스, 페루 연합대성회 등을 인도하시며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중남미 지역에 살아 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셨습니다.

이후 방송과 문서 선교를 통해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끊임없이 공급함으로 중남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더욱이 콜롬비아에서는 엔라세 방송을 통해 당회장의 설교를 접한 많은 영혼이 만민의 양 떼로 등록하면서 2012년 1월에 콜롬비아만민교회가 개척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콜롬비아만민교회를 중심으로 중남미의 많은 지·협력 교회와 함께 사역을 이워가고 있습니다.

엔라세 방송을 통해 전파된 당회장의 설교가 초석이 되어 활발히 이워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엔라세 방송에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설교가 주 2회 방영돼 전 세계 스페인어권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예배와 다니엘 기도회는 스페인어권과 중남미의 많은 영혼에게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의 5개 지교회와 페루 5개, 베네수엘라 4개, 멕시코 3개, 온두라스 1개, 에콰도르 1개의 지교회를 비롯해 스페인, 미국, 캐나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등에서 가정교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결의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라디오 방송을 통한 선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지 성도들이 자원하여 거주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과 접촉해 여러 곳에서 당회장의 설교가 송출되고 있지요. 이후 여러 나라의 더 많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남미 성도들의 자발적 방송 선교와 더불어 손수건 집회도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중남미 곳곳에서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며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줄 때 수많은 사람이 질병 치료는 물론 인생의 문제를 해결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있지요.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도 목회자들이 성결의 복음에 놀라며 그 귀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결의 복음과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 받을 뿐 아니라 성결을 사모하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보장하심 가운데 이루는 만민의 사역을 통해 세계 위에 높임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상휘 목사 (인도 델리만민교회)

'2002 인도 연합대성회'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수많은 힌두교도가 주님을 영접했을 뿐 아니라 무수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도 남부 첸나이에서 시작한 사역은 매년 열린 지역별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중부와 북부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008년 1월, 저는 북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델리만민선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의 전도 화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와 '만민뉴스'를 힌디어로 번역 인쇄해 전도하였고, 당회장의 권능 사례를 모은 '권능' 영상을 힌디어 DVD로 번역 더빙해 보급하니 교회들의 요청으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지요.

2011년에는 델리만민교회를 개척해 교회 사역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줄 때 각종 질병이 치료되니 저는 더욱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인도 전역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방송 선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014년 5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2017년 'GCNTV HINDI'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워갔습니다. 당회장의 설교 '십계명', '십자가의 도', '팔복' 등과 환자 기도 영상을 힌디어로 더빙해 유튜브 채널로 공유하니 시청자들이 간증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고, 구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회의 각종 예배와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힌디어로 동시 통역되자 다양한 언어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지요.



이에 교회 안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번역, 더빙, 자막 작업뿐 아니라 밤낮없는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에 응대합니다.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일정을 조절하고, 문의한 분들의 상황과 성별, 나이와 지역, 언어별로 구분해 적합한 지역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지요. 또 만민 바이블 아카데미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해 시청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상담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다해 헌신하니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 인도뿐 아니라 파키스탄, 영국 등에 250여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힌디어, 타밀어, 우르두어, 오디아어, 벵갈어, 버마어, 네팔어, 마라티어, 보즈푸르어, 구자라티어 등 10개 언어로 확대해 전하고 있지요.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통해 전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의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여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염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전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11길 5 ☎010-9196-392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왕릉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3917-600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